

국토공간 속에 환경과 문화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 최근 들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동시에 국토개발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리고 국토공간에 있어, 질적 성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환경’과 ‘문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물리적 측면의 접근에서 벗어나 자연을 유지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환경과 문화에 기반을 둔 계획과 정책추진은 필수 과업이자 풀어가야 할 과제임
- 국토공간과 환경과 문화를 함께 담기 위해 과거 국토계획과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반성,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정의와 정체성 확립, 타 기관과의 차별화 전략 및 협력방안 구축 등과 같은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 결과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배려한 지역발전체계 구축, 국토공간에 초점을 둔 환경과 문화정책 추진이라는 국토정책 추진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임
- 국토환경·문화정책 발굴을 위해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 지역의 환경과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삶의 가치를 얻으려는 노력과 시도의 중요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본 브리프는 2007년 1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던 ‘제1차 국토·문화 워크숍’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1. 국토공간에서 문화와 환경의 중요성

-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대비한 품격 있는 국토공간 조성
 - 국민소득의 향상과 함께 국민의식도 높아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즉, 더이상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되며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토공간 분야에 있어서 이에 대응할 만한 품격있는 국토정책의 추진이 시급함
- 환경과 문화의 시대 도래
 - ‘환경’과 ‘문화’는 더이상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대상이므로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접근 없이 삶의 질 향상은 이룰 수 없음
 - 자연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문화와 환경에 기반을 두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업 목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

- 국토가치의 재발견을 위한 반성과 사고의 변화
 - ‘국토가치의 재발견’, ‘삶의 질 추구’라는 관점에서 국토정책과 국토계획의 새로운 모델 정립이 요구됨. 이를 위해 과거의 개발위주 사고에 대한 우리의 자연관,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의 혁명이 필요함
- 환경·문화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확립
 - 국토공간에 환경과 문화를 담기 위해, 국토입장에서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정의가 요망됨
 - 국토에서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의미하며, 문화는 시설로서가 아닌 자연을 일꾼(culture)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함. 즉, 국토공간에서의 환경과 문화는 자연과 인간의 삶 자체이자 그것을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차별화 전략

- 환경과 문화에 대한 단편적·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국토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 환경과 문화가 녹아들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수적임. 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고려하고 동시에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실천수단을 마련해야 함
-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협력기관과 관련 부처와의 협력관계(네트워킹) 구축이 중요한 요소임

● 연구의 질적 향상 추구 및 전문성 강화

-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한 환경과 문화분야는 기존의 하드웨어적 계획보다 많은 생각할 시간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며 이는 연구의 질과 직결됨.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다양한 삶의 문화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기회제공이 필요함
- 국토공간의 환경과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구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환경과 문화를 조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여야 함

3. 문화와 생태를 고려한 국토정책의 추진

● 국토공간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문화정책 추진

- 국토분야에서 환경은 자연을 배려한 국토이용과 개발에 대하여, 그리고 문화는 자연변형으로 형성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와 환경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공간에 담을 환경과 문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과 문화를 배려한 정책으로의 전환

- 국토공간에 문화를 담기 위해서는 수단과 상품으로서의 문화가 아닌, 문화 그 자체와 지역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지역개발방식 및 체계 구축이 요구됨

- 국토환경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또는 지역이 아닌 ‘자연’ 그 자체의 건강성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됨

4. 장·단기 정책과제

● 정책과제 발굴에 앞서 고려해야 할 사항

- 자연과 문화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토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국토 공간에 환경과 문화를 담을 수 있을 것임
- 지역의 삶의 가치를 얻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문화에 대한 연구는 감성적인 마음을 필요로 하므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적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요망됨

● 국토공간에서 환경과 문화를 담기 위한 장·단기 연구과제 발굴

- 농촌 삶의 내용, 지역성을 토대로 농촌의 공간적 삶의 토대 개선방안
- 국토어메니티 확보 및 관리(쾌적한 생활여건, 경관, 지역특화, 여가 등)
- 국토생태망 구축(예: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연안축, 광역생태망 설정 및 활용 등)
- 보호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실행 수단
- 사이버문화시대와 국토정책의 대응방안
- 지역역사 및 전통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권 구축
- 재개발에 있어서 문화의 적용(재개발계획을 위한 환경·문화 가이드라인 제시)
- 생태서비스(Ecosystem Service) 제공
- 환경과 문화를 중시한 계획체계 마련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최영국 실장 (031-380-0153, ykchoi@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 박정은 연구원 (031-380-0284, jepark@krihs.re.kr)